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월호 2011

11월 4일에 열렸던 한인회장배 골프 대회



지난 11월 20일에 있었던 순회영사업무



[한인회 소식]

한인회장 신년인사

동포여러분! 지난 해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각기 가지신 달란트대로 후원해주시고 한인회의 모든 행사에 사랑의 손길로 협조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이하는 새해에도 우리 한인회가 동포 여러분을 위한 한인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인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2011신묘년 한 해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11월 23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한인회원들을 모시고 추수감사절 파티를 가졌습니다.

양기훈 학생(양태열, 염선미 님의 장남)이 OC/SD'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피닉스 지회'의 주최로 제1회 평화통일 청소년 백일장대회에서 뉴멕시코 평통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12월 7일 LA김재수총영사님이 한인회를 방문하셔서 동포간담회를 가지고 한인마켓 3곳을 방문하셨습니다.



12월 14일 크리스마스파티를 한인회관에서 가졌습니다.



THE INGLES
Company Real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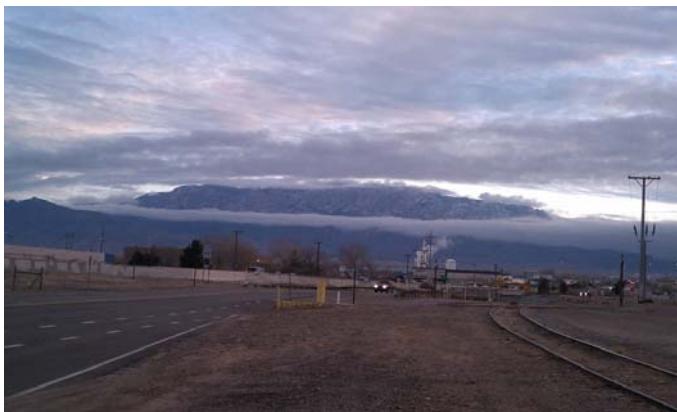
최귀분

- Office: 505-828-1366
- Fax: 505-828-0773
- Cell: 505-249-8686
- E-mail: guiboon@msn.com



김목사의 단상(斷想)

오늘 아침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맞은 편 산을 두르고 있는 구름이 독특해서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보이는 산은 "산디아"라고 이름 붙은 산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한 손안에 들어올 것 같이 우스워보여도 막상 산 속에 들어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웅장한 모습을 갖고 있지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요즘도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길을 헤쳐가며 저 산속에 드나들곤 합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신비를 찾아서 말입니다.



감기 몸살에 계속 이어지는 교회 행사에 쫓기다보니 벌써 1월이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 조그만 소식을 전합니다. 2010년을 돌아보면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세상으로 떠나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달 돌아가신 분의 경우는 매일 아침마다 찾아가서 침상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알 수 없는 것은 가족들은 빨리 하늘나라로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아마도 24시간 환자 곁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이 세상에서 목숨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훨씬 낳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보다는 가족들의 염원에 손을 들어주신 셈이지요. 한 교회 안에서 거의 7년을 가족처럼 지냈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나니 마음 한 구석이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내가 살던 지구 공간의 한 모퉁이를 비우게 되는 날 누군가의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식 주례하는 것을 직업인처럼 하고 있는 목사가 아니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낼 때마다 무언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지요. 지난 주만 해도 내년 2011년이 아직 멀리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목사로부터 다음 주라고 하는 말에 깜짝놀랬지요. 사실 1월 5일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부천 광림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갑니다. 그 외에도 지난 번 발간한 책(큐복음 상, 하)을 사랑해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격려와 후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더욱 기대가 되는 것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노부모님들을 뵙는 것이지요. 지난 달만 해도 몇 일이 멀다하고 전화를 하시던 어머님께서 요즘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뵙려 간다는 말씀을 들으신 이후로부터 말입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뵙는 것을 더 기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505.321.7695 (cell)
Albuquerque, NM 87110 505.888.1700 (office)
yongfre@yahoo.com 505.888.9650 (office fax)

내용 Contents

- 한인회 소식 ▶ p.1
- 김목사 단상 ▶ p.3
- 다시 일어서는 힘 ▶ p.4
- 크리스마스를 기해 우리 가정에 오신 예수님 ▶ p.5
- 태권소녀 "제니" ▶ p.6
- 기정 영화 감상실(2) ▶ p.6
- 갈릴리장로교회 전임자 이원대 목사님 편지 ▶ p.8
- 뉴멕시코의 역사 ▶ p.9
- 조동욱 인도 선교사 사역 ▶ p.10
- 새로나온 책: 페이스북 Facebook?? ▶ p.12

광야의 소리는
매달 1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액: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 권구자 505-553-1009, Kuchachoy@q.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다시 일어서는 힘

이 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명언을 남겼다. 삶은 분명 신이 내린 선물이지만, 아무 근심걱정 없이 그저 행복하게만 살다 가는 사람은 없다. 많은 사람

너무 깊고 끝이 없는 현세의 피로움을 겪다 가는지라 선인들은 삶을 바다에 비유했을 것이다. 한 세상 잠시 다녀가는 동안 누구든 한두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면, 톨스토이가 한 말은 두고두고 읊은 말이다 하겠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극복하고, 고난과 싸우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힘을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고 부른다. 앞으로 학자들이 더 연구하여 분명하게 밝혀야 할 일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힘은 유전적인 요소를 지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마음에 크고 깊은 충격을 주는 체험 즉 정신적 손상을 입고도 감정의 아픔을 덜 받는데, 연구의 결과 그 유전인자가 손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픈 감정의 영향을 덜 받도록 보호해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강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다시 일어서는 힘 역시 배워서 몸에 익힐 수 있다고 말한다.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에게서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남의 도움을 받는다. 그들은 매사에 낙관적이며, 대부분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처럼 주어진 삶을 즐기며, 베푸는 일을 생활화한다. 그들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에 매달리는 대신 자신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그들은 절제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서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바람에 휘어지는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무공처럼 곧바로 다시 튀어 오른다. 자기 안에 존재하는 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의 모든 자원을 끌어 모아 앞으로 나아간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은 경우든, 삶을 바꿔

야 할 만큼 심각한 진단결과든, 참담한 경제적인 타격이든 새로이 맞닥뜨린 현실에 부합하게 미래의 기대치를 조정한다. 그들은 결코 오랫동안 산산이 부서져 있지는 않는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옛적부터 한국인의 주요한 특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 특성은 분명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의 틈에 끼여 나라를 지키면서 체득한 것이리라. 우리 조상들은 몸소 경험하여 알아낸 지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여러 번 실패하여도 굽하지 않는 칠전팔기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초년 고생은 은을 주고라도 산다.’는 속담으로 젊은 시절의 고생은 장래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경험이 되므로 그 고생을 달갑게 참으라고 가르쳤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이라고 가르쳤다.

내가 호주에서 공부하던 시절 사람을 시켜 나를 만난 한국전 참전용사 한 분은 한국의 경제사정을 물었다. 그때는 1970년대의 초라 우리의 경제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던, 아직 어렵던 시기였는데, 손수 매운 뽕고추를 잘아 넣어 만들었다는 집장을 병에 담아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너희는 잘살게 될 거라고 격려해주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 말 오리건 주립대학교에 교환교수로 있을 때 만난 참전용사는 서울올림픽 덕에 TV를 통하여 우리의 발전상을 여실히 보았다면서 놀라워했다. 총 들고 싸우면서 본 처참하던 쟁터미서울이 그렇게 변할 줄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 살아생전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도 했다. 목숨을 걸고 참전했던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전쟁이 끝난 후 불과 30여 년에 우리는 초토 위에 올림픽 경기장을 만들어 전세계를 불러들인 것이다.

다시 일어서는 한국인의 강한 힘은 이미 실증되었다. 그 힘이 한국인의 주요한 특성이라는 말은 결코 빈말일 수 없는 것이다. 더 큰 땅덩이를 가진 나라,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많은 가운데 분단의 고통까지 안고 있는 우리경제는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며,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우리의 화물은 미국 중국 일본 칠레에 이어 5위에 달하고 있다. 거기다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우리나라가 전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국제연합의 수장 반기문을 배출했으며, 피겨스케이팅의 세계적인 스타 김연아를 탄생시켰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는 경제분야의 최상위급 G20 정상회의가 열렸고, 2012년에는 안보분야 최상위급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국으로 우뚝 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우리가 지닌 주요한 특성 즉 다시 일어서는 강한 힘이 빛은 결과이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그 이름은 이제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어 세계 어느 민족 앞에도 뻣떳하게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이름에 손색없는 자격 교양 덕성 인품을 갖추는 일이다. 이런 인간의 본질이 결여되면 추악하고 부끄럽고 한심한 한국인

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름은 얼기도 어렵지만, 지키고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운 법, 자랑스런 이름을 지키려면 절대로 그 이름을 더럽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전에 없이 빈번해진 지금 개개인이 곧 나라를 대표한다는 경각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을 용감하게도, 위대하게도, 영원하게도 만드는 힘이다. 위대한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힘이 만들어낸 것이다. 고국을 떠나 전세계에 흩어져 사는 우리 동포들은 이 힘이 유달리 강한 한국인들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 민족이 불굴의 의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이제 고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으니, 해외동포들은 뜻을 높이 세우고 꾸준히 힘을 길러 각자의 목표에 도전하면 된다. 우리가 가진 주요한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한국인이 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기해 우리가정에 오신 예수님

오영권사

아직도 오십여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크리스마스만 오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다. 우리 가정에 오셔서 온 가족을 구원해주신 주님!!!!!!

나는 불교를 믿으시는 부모님 술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화 여자 대학교 약학대학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너무나 생소하기만 했었지만 내 주위에는 학교가 시작하기 30분전에 같이 모여서 찬양, 기도, 성경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두 친구를(안춘자&박정숙)주셨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앉혀놓고 꾸준히 같이 해주었던 친구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두 친구들을 통해서 같이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이대 약학대학 3학년 때 여름에 서울 도봉산에 있는 다락방에서 YMCA와 YWCA의 대학생을 위한 수련회가 있었다. 일주일 간의 수련회에 참석한 후에는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가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 안드리고 교회에 갔었다. 언제나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던 딸이 하나님 믿기 위해 세례 받는 곳도 부모님께 말씀 드리지 않고 이대에서 김활란 총장님 계실 때 덴만 박사님 모시고 부흥회 때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씨앗을 뿌리시면 꼭 거두신다는 말씀이 실현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 허락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대 4학년이 되면서 나에게는 건강에 이상한 증세로 심기항진, 안구돌출, 혈압이 높아지고 땀이 많이 흐르고, 먹어도 먹어도 한이 없이 먹히는 증세로 세브란스에서 갑상선 비대증(Basedow's Disease)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50여년 전에는 너무나 어려운 증세였다. 약물 치료로는 안되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수술 날짜가 12월 24일 1957년로 결정되었다. 하루 전에 입원하라는 통고를 받고 돌아왔다.

서울역 근처의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하기 전에 신경안정제를 쓰는 가운데 드디어 수술 할 날 아침이 되었다. 이른 아침에 아버지께서 병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영아 그 동안 네가 세례까지 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니 참 잘했다. 영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수술을 받도록 해라. 아빠 엄마도 새해 첫 주일부터 너와 같이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건강에 대한 시험을 통해 완고하시기로 이름나신 우리 부모님을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어 가족들이 같이 새문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어렵듯이 들려오든 새

벽송 소리, 고요한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언제나 한결 같이 들려오는 찬송 소리
크리스마스를 기해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
사랑해요!!!!!!

가정 영화 감상실 (2)

김준호 장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주 독특하게 태어나고 개성이 뚜렷하다. 그래서 쌍둥이라도 생김새가 조금 다르든가 성격이 다르든가 한다. 미국에 유명한 쌍둥이 Double Tennis 선수가 있다 한 사람은 바른 손잡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왼 손잡이이다. 그런데 둘이 서 있으면 누가 누구인지分辨하기 아주 어렵다. 지난 2009년 8월호에 음악 감상실에 관해서 글을 썼던 적이 있다. 그때 음악 감상실과 영화 감상실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면 쌍둥이를 가려내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평범하게는 대동소이 하다고 봐도 된다. 나도 DVD 1은 Logic 7 film으로 영화 감상실로 조정했고 DVD 2는 Logic 7 music으로 음악 감상실로 설치하였는데 그들의 차이점을 현재도 Blind test한다면 실패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간 이번에는 주로 가정 영화 감상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나 드라마가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어떤 것을 볼 것인지 택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다. 다행히도 rating system 이 있어서 평론가들은 영화에 star를 3개 또는 4개 등으로 매겨서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판단을 알려주어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이들은 이 바쁜 세상을 어떻게 한가하게 영화를 보며 지낼 수 있느냐고 하는데 막상 drama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그것 나도 보았는데 참 좋았다고 한다. 나는 속으로 바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재미있었다니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어떤 분을 오래간만에 만나면 “요사이 어떻게 지내시나요?” 하면 대답이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지요.” 가만히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참 한국말은 회한하다고 느껴진다. 눈은 잠에서 깨면 떠야하고, 코는 24시간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하는 데 눈을 뜰 시간도 없고 코로 숨 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바쁜 사람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열이 나서 자기가 본 장면을 이야기 한다. 나에게 언뜻 생각나는 대사가 있다. 한국의 여자 탤런트 중에 김정은이 있는데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농담을 한다. “당신은 나처럼 예쁜 여자 처음 봤어?” 한다. 그런 wit 있는 말에 더 매력이 끌린다. Clint Eastwood가 어떤 영화에서 “Make My day”라는 대사를 남겨서 유명한 Cliché가 되어서 그 대사를 인용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사간이 있다. 이런 시간에 골프를 친다거나 테니스 아니면 등산을 한다든가 한다. 우리 교회에선 몇 분이 이런 시간에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기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사진 기술도 배우고 또 하나는 미술공부다. 다행이도 우리 교회에 미술을 전공하시고 화랑을 운영하시는 박영숙 집사님이 계신다. 그림을 그리다는 것은 하나의 창작 활동이므로 정



사진오른쪽부터 Dynamic Taekwondo관장 Jae Shin Cho, 태권소녀 Jenny Lee, Master Kyle Park

지난 10월 15일날 개최한 2010 Phoenix Open TaeKwonDo Championship에서 품새, 격파, 겨루기 부문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하고 Black Belt Female 부문에서 종합 Champion Trophy 를 수상한 Jenny Lee. 지금 현재 Dynamic Taekwondo 도장에서 수련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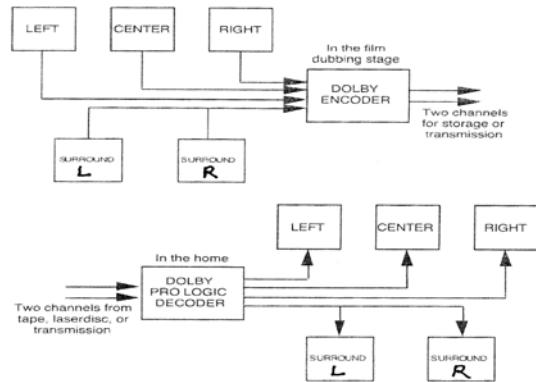
신집중도 되고 정신수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취미 중에 좋은 취미라고 본다.

Home Theater (가정 영화 감상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하게 발전해왔고 VHS, 베타 맥스, Laser Disk, CD, DVD, DVD Audio, Super Audio, Blue Ray DVD, 3D TV 등등으로 일반 소비자들을 향해 시키고 있다. 아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비디오나 영화들을 다 보려면 한 평생 가지고 모자랄 것이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영화를 가정집에서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가로운 토요일 저녁을 즐긴다는 것은 참 행복한 시간 일 줄 안다. 또 함께 식사를 나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현재 이런 영화와 음악을 다루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TV 화면은 1080P Progressive Scanning을 하는 TV가 많이 나와 있고 LCD도 240 Hz, 1080P 가 나와서 더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 영화관 Film화질을 거의 따라간다고 본다. 또한 음향 효과도 Pro Logic이나 Surround Music을 종합하여서 3차원적(입체효과) Sound field를 경험하면 보는 사람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가지게 된다. 예로써 영화 "Jaws"에서 상어가 어선 가까이 다가 올 때 쿵쿵거리는 소리는 보는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 이런 긴박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영화 제작자들의 목적이기도 하다. 어떤 Audio Phile은 아예 자기 집을 건축할 때 가정 영화관부터 설계한다고 한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것이지만 좀 미쳤다고나 할까?

TV Picture Quality는 보통 경험으로 어렵잖게 조정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사람 피부 색깔일 것이다. 그러나 음향 조종은 그렇지가 않다. 음의 directivity, 벽의 reflectivity, diffusion, absorption 등 그 방의 Ambience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영화 감상실이나 음악 감상실에 음의 balance를 무슨 음악을 들으며 조정할 것인지는 문제 중의 문제이다. 즉 Ideal하게 녹음 된 음악을 가지고 음향 조정을 해야 만족하게 조정할 수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300 여 개의 CD 중에서 sound field나 sound stage가 잘 마주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CD 하나를 소개하면 "Mormon Tabernacle Choir Greatest Hit, 22 Best-Loved Favorite", MDK 48294, ADD, DDD 이다. 이 CD를 들어놓고 5개 혹은 6개의 speaker intensity를 우선 조정하고 Surround Speaker의 intensity를 조정해야 한다. Surround speaker는 Illusion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 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을 너무 강하게 하면 분위기가 깨져 버린다. 음향 조정을 할 때 symphony 음악을 트는 것은 삼가야 한다. 왜냐하면 Symphony는 합창과 달라서 여러 악기들의 선율이 급변하기 때문이다. 어떤 A/V receiver는 internal noise generator가 내장되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White

noise(20-20 KHz band를 다 cover 하는 noise)를 사용하는 것은 몹시 시끄러워서 바로 피곤해 진다. 그래서 그것을 권하고 싶지 않다. 나의 가정 영화관 speaker input level은 Front Left가 3.5dB, Center가 3dB, Front Left는 2.5dB, Surround Left는 3dB, Surround Right는 4.5dB로 조정하였다. 이 데시벨(deci Bell, dB)은 speaker의 입력 power를 말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어떤 독자는 왜 각 speaker의 입력 power가 다를까 궁금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의자들과 speaker와의 거리, 벽면에서의 반사율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영화제작자들은 매 장면마다 그 장면의 Mood나 Feeling을 음악으로 만든다. 우리는 Stereo sound에 익숙하다. 그런데 가정 영화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Surround sound는 단지 두 channel로 듣던 Sound stage를 온통 사방에서 실감나는 음향효과를 내어 전연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즉 Surround sound는 강력한 Impact를 준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하는 대표적인 Surround sound format은 Dolby surround, Dolby Digital (AC-3), 그리고 DTS(Digital theater system) 등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Dolby Surround 와 Pro Logic System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한다면, Dolby Surround는 1970년에 Dolby Lab에서 개발한 것으로 5개나 6개의 channel들 (Left, Center, Right, Surround Left, Surround Right, Sub wafer)을 Dolby Encoder에 넣어서 2 channels signal로 전환시켜서 저장하도록 하고, Pro Logic System Decoder에서 이 2 channel signal을 다시 원래의 channel로 전환해서 사용도록 하는 system이다. Sketch를 참고하기 바란다.



Dolby Pro Logic Encoding and Decoding Sketch

우리들은 Dolby Surround 란 말보다는 Dolby Pro Logic 이란 말을 더 자주 듣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일반 소비자들은 녹음과 녹화가 어찌 되었든지 가정에서 어떤 Decoder로 들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통 A/V receiver나 Power Amplifier, DVD player는 여러 가지 decoding system들을 종합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런데 Subwoofer 란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 signal은 Pro Logic decoder 안에 100 Hz 보다 낮은 음들을 Front channel들에서 따로 빼내서 Monotonic하게 만든 channel 이므로 Front Speaker들이 full range로 set-up 되어 있으면 굳이 더 Add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분위기를 더 실감나게 만들고 싶은 분은 Subwoofer를 방안에 어디에나 놓아도 된다.

음악회관(Concert Hall)내에서의 surround sound를 다루는 방법은 영화와는 다른 것이다. 영화에서는 야외에서 바람이 불거나 새소리가 나거나 천둥소리가 나거나 비가 내리거나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야 하지만 concert Hall에서는 되도록이면 soloist들의 소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도 또렷하게 들려야 하고 잔향이 너무 길어서 Intelligibility가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여러 악기들의 위치와 음률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음악회관에 따라서 또 설계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수십 년 전에 Quadraphonic이라고 해서 4 channel 음악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system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졌다. 이유는 관중 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음악회관에서 실제로 듣던 음악을 그대로 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하는 CD나 DVD에 Surround sound music information을 저장하려면 엄청난 memory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악의 Fidelity나 Quality를 희생할 수밖에 없고 compression을 해서 저장하고 있다. 이런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format이 DVD Audio와 super Audio이다. 또 어떤 Music DVD는 아예 5.1 Dolby surround의 Dolby Digital로 encoding을 해서 듣기도 한다. 5.1 Dolby surround란 전에 언급했듯이 상기한 5개의 speaker들과 한개의 subwoofer 합한 setup 을 말한다. 가정 영화관에 대해서만 말한다고 했는데 그만 샷길로 빠졌네요. Sorry.

Dolby Digital Format은 Dolby surround의 미약한 surround channel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알면 좋겠고 가정에서 이것에 상응하는 Pro Logic II Format이 장착되어 있어서 Fidelity가 좋아 졌다고 본다. 가정집에서 영화를 상영하려면 "LUCAS FILM THX"라는 로고가 나오고 그 소리가 어떤 것이지 맛을 보여 준다. 5개의 speaker를 설치하였으면 각 speaker에서 독특한 소리가 들린다. 즉 "Lucas Film THX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Show off 한다고 할 수 있다. 영화 음악 quality는 영화가 시작된 1940년부터 1970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음악 주파수 영역도 제한되어 있었고 Dynamic range도 좁았고 stereo sound도 역시 단순하였다. 그런데 Dolby Stereo가 개발 되면서 영화관 사업이 크게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77년에 "Star Wars" 영화가 나오자 영화관은 전에 없던 성황을 거두었고 상기한 Lucas Film THX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원래 THX란 Tom Holman's eXperiment에서 딴 것으로 THX는 현재 최상의 sound quality라고 알려져

있고 그분에게 특허가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새로운 format는 계속해서 나오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구태여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알 필요는 없고 가끔 system을 자금이 허락하는 데로 upgrade하면 된다.

옛날 속담에 가난한 농부가 조기가 비싸서 그것을 사다가 먹지 않고 걸어 놓고 보기만 했다고 한다. 우리 이민 생활이 어렵기는 하다마는 가난한 농부 같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므로 취미가 있는 분은 새로운 가정 영화관 또는 가정 음악실을 만들고 인생을 더욱 재미있게, 여유 있게 보내시기를 바란다. 다음 호에는 시간이 허락하면 세계에서 유명한 Concert Hall들과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소개할까 한다. 누가 내 마음을 들 쑤셔 놓지 않으면 말이다.

갈릴리 장로교회 전임자

이원대 목사님의 편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한국에 가서 영성 훈련에 참여하다가 지난 4월에 이곳 뉴저지로 돌아와서 허드슨 장로 교회의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가끔 전에 섬기던 교회와 옛 동료와 후배들의 교회에 초청받아 말씀을 전하기도 하며 자살 방지 생명의 전화 사역에 자원봉사자로 섬기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 OSWALD CHAMBERS의 MY UTMOST FOR HIS HIGHEST로 QT를 하는데 참으로 깊고 유익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탁구를 즐기며 저는 만성 요통을 위하여 수영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알버커키에서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던 시절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 그리운 마음 가득 합니다. 귀하신 사모님들께도 문안 전해주세요.

년말과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안에서 늘 승리하소서. 살롬
이원대 목사 드림 201-210-5911 (HOME)
201-966-0131 (CELL)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입시반 (포트폴리오준비반, 덧생반)

강사: 박영숙
 서양화가, 갤러리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 자세한 안내 문의 ▣
 걸러리: (505)-764-1900 휴대폰: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contact@parkfineart.com

뉴멕시코의 역사

2010.12.8 이경화 씀

우리가 살고 있는 뉴멕시코의 역사를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옛날의 뉴멕시코는 아나사지(Anasazi) 인디안들만이 살던 땅이였다. 서기 800년에서 1300년 사이에는 아나사지 인디안이 뉴멕시코서북부에 있는 채코케년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형성해서 채코문명(Chaco Culture)을 이루며 살았다. 채코케년지역에는 5층 건물을 위시해서 대형 건축물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1276년부터 1299년 사이에 있었던 심한 가뭄으로 그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도시를 버리고 리오그란데 강가로 내려와서 소 집단을 이루는 푸에블로를 형성해서 농사를 위주로 하면서 흩어져 살게 되었다.

서기 1500년경에는 카나다지역에서 살던 나바호(Navajo)와 아파치(Apache) 인디안이 뉴멕시코로 이주해 내려왔다. 나바호인디안은 푸에블로의 서쪽지역에 정착했고 아파치 인디안은 남부, 동부에 흩어져 살았다.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후 스페인은 지금의 멕시코 시티(Mexico City)지역을 정복하여 나라를 만들어 이름을 누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 영어로 번역하면 New Spain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총독을 보내어 다스리게했다. 총독은 지금의 뉴멕시코에 시볼라(Cibola)라는 도시가 있는데 길바닥을 금으로 장식 할 정도로 부유한 일곱도시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총독은 1539년 마르코스(Marcos)신부를 단장으로하여 원정길을 가게했다. 쥬니(Zuni)인디안 마을에 왔을때 일행중 하나가 인디안에게 불잡혀 죽임을 당하자 일행은 도주해서 멕시코씨티로 가서 보고하길 시볼라라는 도시는 멕시코씨티보다 몇배나 큰 도시였다고 과장해서 허위 보고를 했다. 총독은 이듬해 코로나도(Coronado) 장군에게 부대를 이끌고 뉴멕시코에 있는 쥬니 인디안이 사는곳에 가서 이 사실을 알아보라고 했다. 코로나도 일행은 쥬니 인디안 마을에 와서 보고는 시볼라라는 금의 도시는 근거 없는 헛소문이였음을 알고 빙손으로 돌아갔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어도비집에 운모로 된 창을 쳤는데 저녁 햇빛에 반사되는 빛이 금색으로 보여 금으로 장식된 도시로 소문이 난 것으로 믿어진다고 한다. 약 40년이 지난뒤 1598년에는 스페인 왕 필립2세의 명에의해서 Oñate가 이끄는 본격적인 북방 개척원정이 시작되었다. 리오그란데 상류 지역에 스페인 이주민이 정착하고 인디안들에게 기독교를 선교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를 거부하는 세력도 컸다. 아코마(Acoma)인디안들과의 갈등으로 10여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죽게되자 보복으로 800여명의 인디안을 죽이고 살아남은 인디안도 25세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그들의 발목하나를 잘라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1610년 스페인 사람들은 상그라데그리스도 산밑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수도로 정하고

이름을 산타페(Santa Fe)로 지었다.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수도(Capital City)가 이때 된것이다. Santa Fe는 스페인어로 거룩한 믿음(Holy Faith)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인디안땅을 식민지로 삼고 인디안의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썼다. 인디안은 그 반발로 1680년 8월 10일 일제히 봉기하여 성당을 불사르고 사제를 죽이는 반란이 일어졌고 이로 인해 400여명의 스페인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고 살아 남은 사람들은 모두 지금의 멕시코 지역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몇년 뒤 인디안의 지도자가 죽고나자 스페인 사람들은 다시 이땅을 손쉽게 무혈로 되찾고 만다. 1692년부터 이 땅은 스페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리 않으려고 식민 정책은 보다 더 온건한 정책으로 바뀌어졌고 기독교도 인디안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스페인의 지배하에서 200여년이 지난뒤 1821년, 스페인의 통치아래있던 뉴스페인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멕시코라는 이름으로 독립국가를 선언하게 된다. 따라서 뉴멕시코는 멕시코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과 25년밖에 않된다. 1846년 멕시코와 미국간의 영토 분쟁이 일어났다. 미국의 스테펜 커니(Stephen Kearny)장군은 멕시코군의 저항도 받지 않고 지금의 뉴멕시코의 라스베가스(Las Vegas)까지 들어와서는 광장옆에 있는 어도비집 지붕위에 올라가서 “이제부터는 뉴멕시코는 미국땅이다”라는 선언을 했다. 이후 2년뒤 정식 조약문서에 의거 이곳 뉴멕시코는 미국의 영토가 되어 인디안, 히스페닉에 이어 앵그로인이 뉴멕시코의 거주민이 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영토가 된이후 이곳 인디안은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나바호 인디안과 미국인 서부 개척자 사이에 마찰이 생기자 갤럽(Gallup)지역에 살고 있던 인디안을 300마일 떨어진 페코스강이 있는 포트섬너(Fort Sumner)로 강제 이주시킨일이 있었다. 이 계획을 반대한 나바호 인디안은 완강히 맞서 싸우다가 케년디쉐이(Canyon de Chelly:아리조나주에 있음)에 도주하여 숨어버리자 킬 칼슨(Kit Carlson)대령이 지휘하든 군인들은 곡식과 민가를 불태우고 가축을 잡아죽이는 보복을 가해서 나바호인디안의 항복을 받아내고 강제 이주를 하는 장거리행진, 롱 워크(Long Walk)를 하게 하였다. 300마일되는 먼길을 겨울철에 8-9000명의 인디안은 걸어서 이동 하는 가운데 200여명이 기아와 추위로 인해 죽었다. 새로 마련한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농사를 짓고 새로운 개척을 하려했으나 토지와 기후 조건이 맞지않아서 계속 기아와 질병으로 많은 인디안이 죽어갔다. 결국 4년뒤 1868년 미국정부에서는 이 계획이 잘못된것임을 인정하고 나바호 인디안을 본래 고향, 뉴멕시코 서북부로 돌아가게 허용했다.

뉴멕시코는 신개척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다. 카우보이를 위시해서 광부, 철도공사 노동자, 노름꾼과 각종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범죄도

늘어나 무법천지가 되는듯 했다. 미국의 어느 장군은 죠크로 말하길, ‘미국은 멕시코와 다시 전쟁을 해서 골치꺼리의 뉴멕시코를 도로 가져가게 해야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빌리더키드(Billy the Kid)는 이 당시 무법의 서부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전해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차츰 질서를 회복하면서 1912년 드디어 뉴멕시코는 미국의 47번째의 주로 승격 된다. 미국영토가 된지 육십이년만이다. 뉴멕시코의 좋은 날씨가 폐병치료에 좋다는것이 알려지면서 요양원시설이 알버커키에 들어났고 이주하는 사람들이 들어났다. 뉴멕시코의 자연풍경에 매력을 느끼고 많은 화가, 사진작가, 저술가등이 산타페와 타오스에 몰려왔다. 넓은 평지가 많은 이곳은 공군기지를 만드는데 좋은 조건이여서 이차대전시기에 세개의 공군기지가 들어섰다. 화이트샌드 미사일 시험장도 생겼다. 험한 계곡이 있는 산속에 비밀유지하기 좋은 조건을 가춘 로스알라모스(Los Alamos)에는 원자탄 개발을 위한 연구소가 생겼고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 남부 사막에서 최초의 원자탄을 터뜨리는 실험을하여 핵시대의 문을 연것도 뉴멕시코에서 일어난일이다.

이차대전때에 참전 용사들중에 나바호 인디안은 암호병으로 활약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미국군은 일본 사람이 나바호 말을 알지못하는점을 이용해서 나바호말로 암호에 대신해 써서 미국군의 기밀유지를 할수 있었고 일본군은 끝내 암호를 해독못한것이다. 한국전쟁때의 뉴멕시코도 큰 기여를 했다. 갤럽(Gallup)에사는 일본인 2세인 히로시미야무라(Hiroshi Miyamura)씨는 한국전쟁때 동료군인을 위해 기관총사수로 중공군과 맞서 용감하게 싸운 공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았다. 한국동란때 뉴멕시코주 인구는 지금 인구의 1/3정도밖에 않되었지만 한국전에 파병한 뉴멕시코출신 군인은 2만명이나 된다. 그중에 189명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뉴멕시코는 인디안, 스페인 그리고 앵그로 문화가 혼합된 타주가 갖지 않은 다양한 색갈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 지금도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큰 봇을 담당하는 주가 되고 있다.

| | |
|---|--|
| <p>Lunch 11:00-2:30 Mon-Sat</p> <p>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p> <p>Closed on Sundays</p> |  <p>KOREAN B.B.Q HOUSE</p> <p>Sushi & Sake</p> <p>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p> <p>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p> |
|---|--|

조동욱 인도 선교사 사역 소개

2010년 9월



1. 인도 그 영광파 비극

인도에는 자랑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는 뛰어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갠지스 유역에 발달한 힌두교 문명입니다. 인도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의료진을 보내어 한국을 도울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인도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는 아름다운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자랑스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52년 인도 남부 마ドラ스에 도착하여 20년 동안 일곱 개의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다 72년 힌두교 과격파의 화살에 맞아 순교한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일컫는 윌리암 케리 William Carey가 사역한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카톨릭 교회에서 사도 바울 이후 최대의 선교사로 St. Xavior를 일컬으며 개신교 선교의 사도 바울로 스텐리 존스 Stanley Jones 선교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도에서 사역했습니다. 인도는 일반 문화전통이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 영광스런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과거의 영광스런 흔적과는 달리 현재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 인도는 미개발 국가 중의 하나요. 빈곤한 나라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도마로부터 시작된 약 2천 년의 긴 기독교 역사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도의 복음화율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하여 전체 인구의 2.4 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복음적 기독교인의 비율은 1 프로그램도 미치지 못합니다. 낮은 복음화율을 가진 인도 기독교인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 복음적 신앙보다 힌두교의 범신론적인 신앙에 영향을 받아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종교 형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은 인도는 약 12억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11억 이상의 영혼들이 지옥 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비극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입니다.

2. 조동욱 선교사 간략한 사역 개요 가. 역사

조동욱 선교사와 김은영 선교사는 지난 1997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인도 파송 후 최초 3년간은 인도 남부의 벵갈로르 Bangalore에서 현지 적응과정 및 교수 사역을 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2000년 현재 사역지인 북인도 웨스트 벵갈 State of West Beng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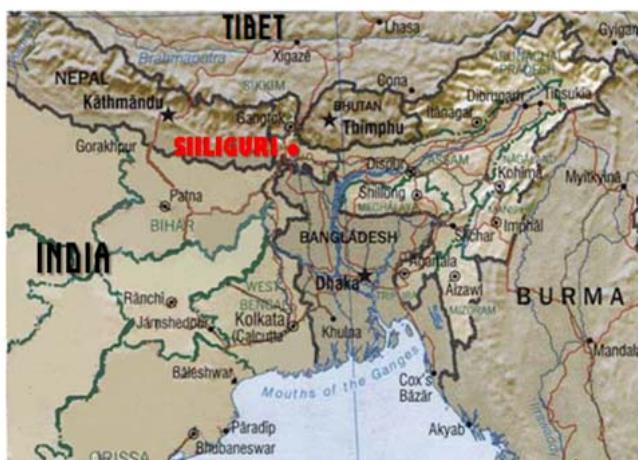
의 실리구리 Siliguri로 이동하여 선교 캠프를 세웠다. 2001년 현지 법인체 Gospel Crossing Asia를 집아 정부에 등록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목회자로서 정규 신학과정을 마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 년 과정의 선한 목자 성경 신학원 Good Shepherd Bible Institute을 운영하다가 2003년 7월 이를 정규 신학대학과정으로 전환하여 열방 신학대학 All Nations Theological Seminary을 설립 운영 중이다.

그 외의 열방 신학대학의 졸업생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개척 사역과 또한 2005년부터는 개척된 각 교회와 교회가 위치한 지역 공동체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호산나 스쿨 Hosanna Mission Schools 사역이 병행되고 있다.

2007년 이재수 선교사와 2008년에 차명철 선교사가 이 사역에 동참하여 조동욱 선교사를 중심으로 협력 사역이 잘 진행 중에 있다.

나. 선교지의 위치

현재 조동욱선교사가 선교기지로 삼고 있는 곳은 인도 동북부 히말라야 산맥의 관문 도시인 웨스트 벵갈 주의 실리구리 Siliguri이다. 실리구리는 서쪽으로 네팔과 동쪽으로 부탄 그리고 남쪽으로는 벵글라데쉬, 그리고 북쪽으로는 중국의 티벳 등 여러 나라의 국경을 연결하는 곳에 위치한다. 이로서 실리구리는 주변 국가로 접근하기 위한 교통요점이기도 하다. 주변의 국가들은 모두 힌두교(네팔)와 불교(티벳, 부탄) 그리고



고 이슬람(벵글라데쉬) 등 반기독교적인 종교에 둘러쌓여 있어 기독교 복음 전파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실리구리는 이러한 지정적인 전력 요충지로서 복음 전파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선교 전략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실리구리는 히말라야 산맥 너머의 중국의 마지막 도시인 티벳의 수도 라사 Lasha와 연결되는 인도 측 마지막 도시로서 히말라야 하이웨이 프로젝트의 거점 도시이기도 하다.

다. 선교 사역의 목적과 전략

법인체 Gospel Crossing Asia는 아래와 같은 목적과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 중에 있다.

- 1) 실리구리를 중심한 히말라야 지역 주변 지역과 인근 국가들에 대한 지도자 양육을 통한 복음화
- 2) 지역 내 자국인을 통한 교회 개척과 지역 복음화.
- 3) 학교 사역, 공동체 개발 사역. 그리고 문화 사역을 통한 통전적 선교.
- 4) 히말라야하이웨이 프로젝트를 통한 중국-인도 중심의 선교네트워크 구성

3. 조동욱 인도 선교사의 실제 사역들

- 1) 열방신학대학 사역- 현재 대학과정(B.Th) 및 신학대학원(M.Div) 개설 중

현재 재학생 60명 교수진 8명 스탠 8명/ 독립 캠퍼스 보유.-학교 본관, 도서실, 기숙사, 식당 건물 보유.

- 2) 교회 개척 사역. -현재 다섯 개의 개척 교회가 있다. 주로 산탈리 Santali 종족 중심을 대상으로 선교 하며 개척 후 현지 교단에 인계한 세 개 채의 교회가 있다.

- 3) 호산나 스쿨 사역- 호산나 스쿨은 네 개의 학교에 약 350여 명의 재학생과 16명의 교사를 두고 있다. 이

- 4) 히말라야하이웨이 프로젝트 Himalaya Highway Project 선교전략 사역

히말라야 하이웨이 프로젝트 Himalaya Highway Project는 다가오는 세대의 잠재적 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산맥을 너머 복음으로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사역이다. 인도의 마지막 도시인 실리구리 Siliguri와 중국의 마지막 도시인 티벳의 수도 라사 Lasha의 구간에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선교 행위를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히말라야 하이웨이프로젝트는 중국 지하교회의 생명을 내건 복음적 열정과 선교의 긴 역사와 선교적 경험. 그리고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잠재력을 보유한 인도 기독교가 연결 연합 함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폭발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히말라야 하이웨이 프로젝트 구간은 중국 지하교회가 주창하는 백투예루살렘 운동 Back To Jerusalem Movement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략적인 위치이다.

이를 위하여 2009년 이후 중국 지하교회를 대표하며 백투예루살렘 운동을 주도하는 지도자 수용제와 히말라야 하이웨이 프로젝트 주창자인 조동욱 선교사 사이에 긴밀한 개인적인 관계와 선교 전략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 사역을 위한 기도 요청 제목

- 1) 열방신학대학이 교회 개척 지도자를 세우는 모판의 역할을 하도록.
- 2) 개척된 인도 현지 교회들이 자국민들을 복음화시키는 진원지가 되도록

3) 조동욱 선교사 내외의 효율적인 안식년과 협력 선교사들의 영적 진보를 위해



열방신학대학 캠퍼스 전경



신학교 졸업식 입장 직전



신학생들 교회개척 및 전도 훈련



호산나 스쿨

5. 조동욱 선교사 연락처

All Nations Theological Seminary

Metigara P. O. 734010. Siliguri. Darjeeling

Dist. West Bengal .India

91- 353-2571900(Seminary)

91-99330 22580 (Mobile)

Email address <kor_in@hotmail.com>

미국 연락처 973- 533- 1365// 973 356-9331

김은영 조동욱 선교사

새로 나온 책: "페이스북 이펙터"

이준구 지음

아라크네 / 2010년 11월 / 320쪽 / 15,000원

제1장 왜 페이스북인가

무섭게 성장하는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2004년 2월에 하버드를 시작으로 서비스 가능 대학을 조금씩 늘려가며 서비스 오픈 10개월 만에 대학생 회원으로만 100만을 넘겼다. 이후 대부분의 대학에서 서비스가 실시되었고 대학생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네트워크를 시작하고 소셜 그래프를 도입했다. 그 후 1년 만에 회원이 다섯 배가 넘게 늘어 가입자가 550만이 되었다.

뉴스 피드가 도입되어 친구가 간접적인 정보를 순식간에 확인 가능하게 되자 기존사용자는 페이스북을 스토커북이라고 부르며 심하게 저항했다. 2006년 10월에 13세 이상 연령층에 제한 없이 페이스북을 오픈하자 사용자층의 대부분이었던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사생 활과 보안 문제로 분노를 쏟아 냈다. 또래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여 대마, 술, 파티 등 문란

한 사생활을 가감 없이 올려 왔던 일부 사용자들의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이런 반응과는 상관없이 서비스가 시작된 지 3년이 조금 넘은 2007년 4월에 사용자 수는 2,000만을 돌파한다. 그후 친구의 친구 Friends of Friends 기능과 이 기능 출시 몇 달 전에 시작되었던 특화된 친구 목록 기능의 추가로 개인의 친구 관계가 공개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8월에 사용자 수는 1억명을 돌파한다.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사용자 콘텐츠의 소유권을 페이스북에 주도록 약관을 말도 안 되게 수정해 버린 2009년 2월에도 극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앞으로는 새로운 페이스북 정책이나 운영 원칙에 기존 사용자가 리뷰나 코멘트, 투표 등을 통해서 참여하게 할 거라고 진정시키자 1억을 돌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2억 5천만의 사용자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게 된다.

2009년 8월, 프렌드피드를 4,750만 달러에 인수하고, 사생활 정책을 캐나다 정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개신했다고 발표한 후 6개월이 지나자 사용자는 4억 명을 돌파한다. 사실 캐나다 정부는 페이스북의 사생활 정책 발표 1년 전에 페이스북의 사용자 보호가 매우 미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멈추지 않았다. 2010년 4월, 소셜 플러그인의 하나로 Like버튼 등을 출시하여 사용자의 취향을 수집하고, 이를 오픈 그래프를 이용해 써드 파티 서비스Third Party Service가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2010년 5월에는 페이스북의 결함으로 공개되면 안 되는 정보가 공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수 증가는 그칠 줄을 몰랐다. 이미 페이스북의 사용자 수는 몇 개월 사이에 다시 1억 이상이 늘어 2010년 7월에 5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였다. 2010년 8월에 위치 기반 서비스인 플레이스Places가 소개되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졌지만 사생활 문제로 페이스북을 탈퇴한 사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관계정보를 내놓으면 맞춤형 광고를 주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단연 구글이다. 구글에서 공개한 2010년 상반기 매출은 135억 9천 500만 달러이고, 세금을 제한 순이익이 37억 9천 500만 달러에 달한다. 매출의 96%는 애드워즈, 애드센스 등의 검색 및 문맥 광고에서 오는데 유튜브, 지메일, 검색 등 구글 서비스에 노출되는 광고가 2/3이상, 개인·기업 블로그나 뉴스사이트 등 외부 웹사이트에서 애드센스 등을 통해 벌여들이는 광고 매출이 1/3 정도 된다. 2010년 상반기 순이익만 2010년 9월 15일 환율로 4조 4천억 원이다. 이에 비해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은 2009년 미국에서만 5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2010년에는 8

억 3천만 달러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명히 적은 돈은 아니지만 구글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이다.

전체 광고에서 온라인 광고의 비율은 2009년에야 10%에 간신히 육박한 정도이다. 하지만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다른 정통적인 매체에 들어가는 광고 금액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온라인 광고는 매년 10% 안팎의 성장을 이어가며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구글의 2010년 상반기 매출은 2009년 같은 기간의 매출 110억 3천 200만 달러보다 23% 이상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이 10% 안팎의 성장을 예상하는 와중에 구글의 20%를 넘는 매출 신장은 온라인 광고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온라인 광고에서 소셜 네트워킹 광고 시장이 열린 것은 5년도 채 되지 않았다. 마이스페이스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눈에 띄는 시장이 형성되었다. 2006년 5억 달러도 안 되던 전 세계 소셜 네트워킹 광고 시장은 2010년에 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연간 30% 안팎의 가파른 성장을 내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집행되는 광고 금액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고, 미국에서 소셜 네트워킹 광고로 페이스북에 지불하는 돈이 미국에서 집행되는 돈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에 미국에서 페이스북의 매출 비중이 36%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2010년의 50%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페이스북도 구글처럼 광고에서 매출의 대부분을 얻고 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의 광고 전략은 다소 큰 차이가 있다. 구글은 광고 중개를 하면서 광고 키워드를 경매한다. 이 경매 방식은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기존의 온라인 광고 경매 방식과 비교해도 광고자 입장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다. 반면 페이스북의 광고는 구글과는 다른 방식으로, 광고주나 광고 소비자에게 매력적이다. 광고의 핵심은 타겟팅이다. 광고를 기꺼이 정보로 받아들일 사람을 찾으면 광고의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일상에서는 누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니까 무차별적인 광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차별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돈이 많은 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놔주지 않는다.

하지만 페이스북에서는 타겟팅이 가능하다. 페이스북 사용자는 알게 모르게 자신의 인적사항은 물론 자신과 관련된 사람, 조직, 사물, 장소, 생각을 프로필에 노출한다. 성별, 나이, 생일 및 기념일, 주거지, 학교, 종교, 직업을 비롯하여 친구는 누구인지, 애인은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자식은 있는지 등의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취미는 무엇이고 평소에 어딜 자주 가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을 기록한다. 이렇게 입력된 관계 정보를

바탕으로 페이스북은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 줄 수 있다.

광고하려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노출하느라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원치 않는 광고에 사람들이 부리는 짜증을 생각하면, 광고를 반길 만한 사람에게만 광고를 하는 것이 최고일 것이다. 페이스북은 실시간으로 광고에 타기팅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필자가 이 책을 쓰는 시점에 페이스북 사용자 가운데 남성 정장을 가장 필요로 할 것 같고,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사람을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23~29세 사이의 남성이라고 특정 지었더니 페이스북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28만 2천 100명이라고 알려준다. 더 명확한 타기팅이 필요하다면 결혼이나 연애 상태, 학력이나 직장으로 세분할 수 있다. 필자의 대학교와 라이벌 대학교 두 대학교 학생으로 한정지었더니 타기팅된 사용자는 240명이라고 나왔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졸업이나 입사 면접에 대비하여 남자친구에게 선물로 양복을 사주고 싶어 하는 연애 중인 여성이나, 아들에게 양복 한 벌 맞춰 주고 싶어 할 50대 기혼자를 대상으로 문구를 다듬어 광고에 집중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를 돋보이게 하는 세련된 남성 정장을 9만 9천 원에 선물하세요’라든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고급 정장’ 같은 문구는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른 광고에 비해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색은 구글, 뉴스는 트위터, 관계는 페이스북

인터넷 검색을 구글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검색에 있어서 구글은 독보적인 서비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지배적이지 못한 시장은 바이두Baidu가 점령한 중국, 얀덱스Yandex가 대세인 러시아, 구글이 체코어 지원을 늦게 시작해서 체코어 검색에 있어 강세를 보인 세즈남Seznam의 체코, 야후가 근소하게 앞서는 일본, 포털 검색 네이버가 우세한 한국 정도이다.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킹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트위터는 경영자 중 한 사람이 ‘트위터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아니라 소셜 뉴스 서비스다’라고 할 정도로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에서 뉴스 플랫폼으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신은 현재까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망 서비스는 페이스북 이전에 마이스페이스가 음악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후발주자인 페이스북에 왕좌의 자리를 내주었다.

페이스북은 현재 SNS 부동의 1위이다. 서비스 론

칭 3년 만에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꾀했던 전략은 맞아떨어졌고, 반발은 있었을지언정 탈퇴를 고려하는 사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오히려 사용자는 증가 중이다. 특히 영미권에서 웹 서비스를 만드는 데 페이스북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관계망을 이용하는 무엇’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단순히 사용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사용자의 관계정보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얻기 쉽기 때문이다.

플랫폼으로의 성공 가능성은 사용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플랫폼이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정보 가치와 기회로 결정 난다. 플랫폼에서 성공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를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 플랫폼이 주는 가치를 보고, 고민하고, 연구한 사업자가 기회를 잡는다.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 회사가 있었지만 페이스북에서 성공을 보여 준 회사는 사람들의 관계 정보와 심리를 파고든 게임을 만들어 낸 징가Zynga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망을 게임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전형을 만든 곳이다.

제2장 구글과 반대로 가며 구글을 넘어서기

모두 검색하는 구글, 필요한 것만 가져오는 페이스북

구글은 전 세계에 공개된 웹 페이지를 웹 크롤링 기술을 이용해 수집하고, 각 페이지를 분석하여 색인 작업을 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거친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자. 전 세계의 웹을 책이라고 하자. 책은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이 있고 목차도 있다. 대부분의 책 맨 뒤에는 해당 책을 쓰기 위해 참조한 다른 책에 대한 정보도 있다. 각 페이지에는 인용이 있을 수도 있고, 각주나 미주와 같은 주석도 있을 것이다. 한 권의 책을 하나의 사이트라고 보면, 웹 페이지는 책의 페이지가 된다. 책이 목차를 통해 책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웹사이트도 사이트 맵이라는 것을 통해 전체 사이트가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책이 장별로 내용이 구분되듯 웹사이트도 카테고리를 통해 분류한다. 웹을 책으로 비유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웹에서는 인용이 있을 경우 해당 인용으로 바로 전너갈 수 있는 ‘하이퍼링크’라는 것이 있다는 정도다.

웹을 책이라고 생각했을 때, 구글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책의 모든 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고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골라서 그 단어가 어느 책의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기록하는 것이다. 책 뒤의 색인Index 항목을 보면 특정 단어가 책의 어느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알려 주는데, 구글은 이런 색인을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모든 책의 모든 페이지를 확인하여 달아 놓는다. 색인된 단어 하나에

수없이 많은 책의 수많은 페이지가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구글은 새로나온 책이 발견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전체 색인을 갱신한다. 이미 나온 책도 틈만 나면 다시 확인해서 수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구글은 웹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작업을 모두 컴퓨터가 알아서 하도록 한다. 크롤러crawier라는 프로그램이 웹의 모든 페이지를 찾고 모아서 맵리듀스MapReduce라는 기술로 웹페이지에 담긴 데이터와 링크와 메타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색인 작업을 하고, 전체 색인을 갱신하고, 색인된 모든 정보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어느 책의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를 색인을 통해 찾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책의 특정 페이지를 차례로 기록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반면에 페이스북은 웹 전체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하고 색인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는다. 페이스북이 관심을 갖는 정보는 페이스북 서비스 안에서 사용자가 만들어 낸 정보와 페이스북 사용자가 페이스북 밖에서 페이스북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정보뿐이다. 페이스북은 인터넷의 여러 정보 소스, 예를 들면 인터넷 뉴스 사이트나 블로그, 홈페이지, 포럼, 게시판 등에 페이스북으로 해당 페이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f가 들어가 있는 네모 버튼이나 Like 버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 사용자는 자신이 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이런 버튼 클릭 한 번으로 해당 페이지로의 링크와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신의 공간에 담을 수 있고 원하면 자기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해 페이스북 안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페이스북은 그제야 해당 정보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위에서 구글이 한다는 색인 작업을 사용자가 선택한 정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다. 전체 웹의 정보를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각 사용자의 판단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보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적어도 해당 정보를 페이스북 안으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사용자가 하나의 페이지를 유용하다고 판단해서 페이스북 안으로 가져오면 페이스북은 같은 페이지가 몇 번이나 페이스북 안으로 들어왔는지 기록한다. 이 숫자는 특정 페이지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했는지 알게 해준다.

구글은 웹 페이지를 하나의 데이터로 보고 이것을 자동으로 모두 수집하여 색인 작업을 하고, 일관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에 비해 페이스북은 일종의 수동화된 정보 짤때기를 제공한다. 페이스북 사용자는 웹을 돌아다니면서 맘에 드는 정보를 발견하면 페이스북 안으로 집어넣는다. 사용자 판단이 필터 역할을 하여 상대적으로 쓸모없는 정보는 페이스북

{종교 소식}

뉴멕시코 성결교회

전종철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님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拉斯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11:00 am

§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님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 10:00 am (Sunday)

수요예배 (Wed. Night Worship)

§ 7:30 pm (Wednesday)

새벽기도회

§ 5:30 am (Mon-Fri)

§ 6:00 am (Sat.)

화밍تون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연락처: 505-453-5461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웹 페이지에 붙어 있는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버튼이나 Like 좋아요 버튼이 이런 필터 달린 깔 때기 역할을 한다.



수학적인 구글, 관계 지향적인 페이스북

구글은 거의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가치를 제공하려 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같은 상황일 리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일까. 구글은 특수한 상황마저 수학적인 패턴으로 파악한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각 사용자가 어떤 패턴에 속하는지 판단해서 같은 패턴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각 사용자가 부지불식간에 제공하는 여러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어떤 패턴에 속하는지 구분하고 같은 패턴의 사용자 집단이 어떤 정보와 검색 결과를 내놓았을 때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한다. 구글이 검색 히스토리를 모으고, 소셜 서비스를 시도하여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결국 패턴을 더 세세하게 나누어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의 하나이다.

데이터를 충분히 모아서 패턴별로 제공하는 정보가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이후에는 어떤 사용자라도 개인 데이터만 제공하면 그 것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행태나 취향을 예측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면 결국 같은 정보를 얻는다는 뜻이다. 필자의 경우 구글의 RSS 리더 서비스인 구글 리더 서비스를 사용할 때 놀라운 경험을 했다. 약 200여 개의 피드를 구독하고 있는 필자에게 구글 리더에서 블로그나 뉴스 사이트의 피드를 추천했다. 그런데 추천하는 피드마다 필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담고 있었다. 아마도 구글 리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피드 구독 패턴을 파악하여 비슷한 패턴의 사용자가 구독하는 피드 가운데 필자가 구독하지 않은 피드를 추천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이 구글의 무서운 부분이다.

반면에 페이스북이 사용자로부터 제일 먼저 모으는

정보는 ‘인간관계’이다. 동양에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고, 서양에는 ‘같은 짓털을 가진 새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다. 각 사용자별로 원하는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 구글처럼 방대한 원시 자료Law Data를 모아 분석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관계 정보만 있으면 이것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특정 지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용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공유한 것, 좋다고 표현한 것들을 힌트 삼아 사용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사용자의 선택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나간다. 페이스북을 열심히 사용할수록 사용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보들이 제공된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는 최적화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당신의 친구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당신도 좋나요?’ 정도이다. 사용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당신 친구가 좋다는데 어쩔 것인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라고 다소 단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검색 사이트가 그렇다. 구글이 알고리즘 보완에 실패하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지 못하는 빈도가 늘어나면 사용자는 별 부담 없이 다른 대안 서비스를 찾을 수밖에 없다(물론 구글보다 뛰어난 대안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겠지만.)

그러나 페이스북은 구글처럼 하나의 완결된 알고리즘으로 사람을 특정 짓지 않는다. 각 사용자의 선택을 통한 관계망의 형성은 죽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다. 이 관계망은 모든 인간관계를 포함하고 현재는 콘텐츠와 상품과 서비스, 심지어 가상의 물건이나 장소까지 확장된다. 이 관점에서 개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망에서 얻게 되는 정보는 ‘당신이 좋아할지도 모르는 어떤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 나오면 사용자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도 실망하지 않는다.

페이스북의 주요 기능과 메뉴

- 참여와 나눔의 공간, [담벼락] : 페이스북 홈페이지의 기본 화면은 담벼락(Wall)인데, 이 화면에는 사용자의 얼굴 사진과 기초적인 프로필 정보, 친구들의 사진,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입력창 등이 자리하고, 여기에서는 사용자가 쓰고 싶은 글이나 사진, 동영상 및 웹사이트 링크 글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올려진 글들은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동시에 공유(공개)된다.

- 온라인 자기소개서, 프로필 [정보] : [정보] 탭에는 자신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생일, 취미, 사회경력 등)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특성이나 경력, 관심사 등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는데, 새로 친구를 사귀게 될 때 상대방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게 되는 곳이기도 하다.

- 국경을 초월한 무언의 대화수단, [사진] : [사진] 템은 나의 일상을 담아 저장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온라인 사진첩 기능을 지원한다.
- 개인의 아이디어 기록장, [노트] : [노트] 템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데, 사용자가 개인 일기를 쓰거나 페이스북 친구들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글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이미지도 쉽게 첨부할 수 있고, 또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웹사이트나 자신의 블로그 주소를 연동시켜 자동으로 글을 받아올 수도 있다.
- 일대일 비밀 메시지 교신 도구, [쪽지] : 페이스북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 중 하나로, 특정인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비공개 메시지 도구다.
- 어플리케이션 연결 도구, [페이스북 커넥트] : 페이스북과 외부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연동 기능으로, 페이스북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도록 어플리케이션을 페이스북 메뉴에 추가 설치해준다.

페이스북의 '공유' 철학과 미래

페이스북은 전형적으로 소셜 네트워킹 기능에 충실한 서비스다.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를 맺고, 친구의 친구를 알게 되고, 인맥을 확장하고, 안부를 묻고, 유용한 정보를 친구들과 함께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정보가 빠르게 흘러가지 않고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간다. 반면 트위터는 짧고 간단한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팔로잉하게 하는 방식이라 메시지의 전달 속도가 매우 빠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빠른 만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빨리 잊혀지기도 한다. 요컨대 웹에서 소중한 친구를 만들고, 인맥을 확장하고, 서로간의 대화를 통한 소통을 중시한다면, 트위터보다는 페이스북이 그런 기능에 훨씬 더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Break out of your shell... EXERT CONFIDENCE!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 | | |
|---|--|--|--|
| 알버커키 Albuquerq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BQ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BQ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BQ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66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BQ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식품 Health F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내츄럴: 2302 Morris NE, ABQ (505-453-5461)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회계사 C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MTM Accounting Service 룬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커스토어 Liqu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텔 Hotel/Mot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BQ (505-881-3210)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Real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레이스김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탁소 Dry Clea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발 Sho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BQ (505-883-9009)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류 Cloth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BQ (505-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용자 Loan Offic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 치과 Dental Clin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hr/> 커피 재료 Cof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271-2633) <hr/> 태권도 TaeKwon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Dynamic taekwondo academy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96-0336 <hr/> 한의사 Acupun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hr/> 화랑 Gall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hr/> 화원/원예 Nurs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hr/> 사진관 Star 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 883-3112 <hr/> 중재서비스 Mediation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 #O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i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 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겔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1, Las Cruces (575-496-2445)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تون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تون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렌트/부동산

도와주세요

구인/구직

사고/팔고

정보마당



알버커키 박영숙 화가(www.youngsookpark.com)와 김수영 화가(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의 작품들입니다.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stamp here

61 cent 우표
붙인 후 밖으로
집어서 발송

To: